

“우리는 환경을 생각한다”

- 유공을산 컴플렉스 안전환경관리부 -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 5월 21일 환경설비준공을 기념한 환경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울산시의회 보사위원장을 비롯한 6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업으로서는 처음 시도한 행사로 환경홍보영화관람, 심포지움, 현장견학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견학시에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환경관련설비를 돌아보아 이 행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다.

'89년부터 시작한 환경관리5개년 계획에 의한 신규환경설비 투자계획이 '91, '92년 들어 종합폐수처리장/ 종합소각로 등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정상 가동되고, 또한 대기오염 저감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질유분해, 탈황시설, #3 MDU등이 완공될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회사의 환경보전 노력과 실적을 우리회사와 환경문제로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공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환경을 보는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여 회사의 향후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우리회사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계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으로 알려 우리회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행사를 기획하였다.

당초의 기획시에는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사이고 기업이 스스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자체의 환경설비를 알린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때문에 행사결과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더 큰 걱정이 있었다. 외부인이 우리의 단점을 보고 지적을 하지 않을까, 행사중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주최자나 손님이나 서로 입장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견학중 설비결함이나 공정비상사태로 범위반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걱정이 행사준비보다 오히려 더 준비요원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히 우려하던 걱정도 아무런 사고도 없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을 때 담당임원을 비롯한 행사준비요원 전원은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유공에서 이 행사를 추진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유공이 선정한 환경기본이념에 잘 나타나 있다. 유공의 환경관리 기본이념은 「지

역사회와의 동승발전」 「자연환경과의 조화」 「세계일류수준의 환경관리」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도적 환경보호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환경 Master Plan을 수립, 단계별 실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사장의 「환경관리방침선언」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유공이 수립한 환경 마스터플랜의 1단계에는 최적 수질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최적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확보/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는 오염물 원천관리, 재이용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 그리고 3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3R운동(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자연으로의 배출물은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공은 제1단계 최적 환경오염방지설비의 확보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억, 대기 및 폐기물 분야에 4,200억을 투자하였으며 2, 3단계에서는 수질분야에 약 700억, 대기분야에 3,500억, 폐기물 및 지하수관리 등에 약

800억원 등 포함 5,000억원 정도를 연차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가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기업과 사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통제하고 감시받는 관계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행정기관은 서로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고, 주고 받아야 할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회사는 행정기관이나 시민단체, 학계로부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물론, 기업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들었고, 한편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도 들었으며, 이렇듯 사회는 서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내 스스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열어 외부에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열린 마음은 개방적 환경관리라는 유공의 환경 Master Plan에서 표명이 되어 있었고, 하천 정화운동, 푸른산가꾸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손님을 초청할때, 집안 손님을 맞을 만큼 준비가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하는 것처럼 선진 환경관리 수준 확보 또한 개방적 환경관리의 중요한 단계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왔다. 「자연과 인간의 내일을 생각하

는 선도적인 환경보호기업」이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유공 경영층의 환경보전 의지는 대단하다. 향후 10년간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이 이처럼 확고히 정립되어 있는 기업도 아마 드물 것이다.

유공의 환경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Zero Discharge』이다. 유공의 경영층은 Zero Discharge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Zero Discharge를 위한 환경관리계획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는 「제품 소비단계의 환



경관리」로서 이는 제품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황, 분진등)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킨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으로 합산소 옥탄가향상제 제조시설 설치, 중질유 탈황공정 설치, 전기자동차 연구, 태양에너지이용 등을 통한 Clean Energy 및 신에너지 개발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품 생산단계의 환경관리」이다. 제품 생산단계의 환경관리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최첨단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장 등의 최적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하여 처리수 일부는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며 수거한 H₂S는 황제품으로 회수하고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은 보일러를 통하여 열을 회수하여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감소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3R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단계별로 공정발생 오염물질의 양은 줄이고, 또한 오염농도를 낮추는 환경보전 노력이 계속될 때 정부의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참여는 물론 결국 Zero Discharge라는 목표는 이상 아닌 환경의 Super 수준(Super Excellent Level)이라고 자신있게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 이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 간략히 보고되었던 행사공고를 보고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환경관련 단체에서 문의 전화와 관련자료의 송부요청, 환경설비 견학요청은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주고 동시에 이러한행사가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 환경설비를 견학한 대부분의 의견은 유공이 이 정도로 환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몰랐으며 환경관리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이 왜 외부에 진작부터 알려지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도 한

다. 유공이 존속하고 유공 경영층의 환경보전의지가 확고한 이상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유공은 앞으로도 계속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를 부탁한다.

첫째로 환경투자자금의 지속확대로 환경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증대를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설비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노력정도에 따라 자율, 제도, 강제등과 같이 규제와 관리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목표의식이 분명해 지도록 유도하는 차

등관리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투자에 의한 원가부담을 기술개발, 관리혁신 등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술향상과 고유기술확보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기업이 실행가능한 것과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별해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투자예산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요구나 흑백논리는 지양되어야 하며, 냉철한 판단으로 단계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각계가 2,000년대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공동의 노력과 협의를 통하여 제시, 정립하고 이를 바

탕으로 균형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같은 국내관계법, 지역의 조례, 협약 등과 같은 국가나 사회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응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지구환경을 무역의 장벽으로 구축하려는 국제적 추세와 환경이 우선하는 정책의 시대가 멀지 않았고, 환경보전이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고 그 이미지의 호감이 판매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적법한 환경관리를 하는 보수적이고 방어적 환경관리에서 진일보하여 선도적환경관리를 기업의 기본방침으로 선언하여야 옳다고 본다. ♠

정유사가 개최한 환경심포지움

- 유공울산 컴플렉스 안전환경부 환경1과 -

지난 5월 21일 유공컴플렉스에서 「2000년대 울산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란 주제를 가지고 환경심포지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유공의 2004년까지

시행해야 할 3단계 5개년 환경사업 투자계획중 그 1단계 사업인 종합폐수처리장 및 소각로 완공기념 행사라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으나 향후 환경사업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본 행사 실시에 대해서 유공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많았다. 즉 지금 시운전 상태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공연히 일만 벌여서 나중에 자승자박하는 꼴이 아닌가? 또는 왜 우리가 이런것을 주관해야 하느냐는 거부적 시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시민, 정부, 학계, 기업이 솔직하게 환경이란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